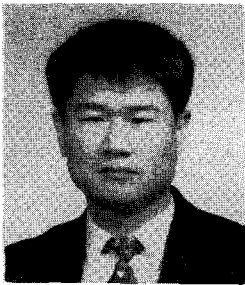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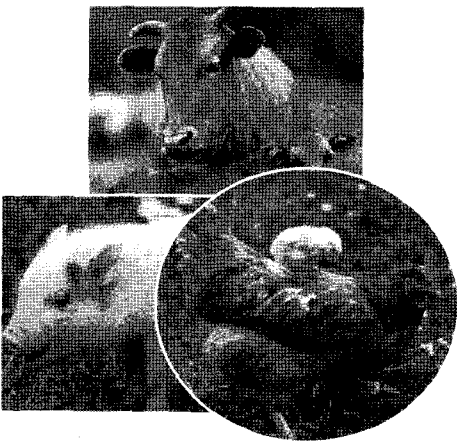


식육업계의 단합과 소비촉진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장 영 수

(농협중앙회 식육교육센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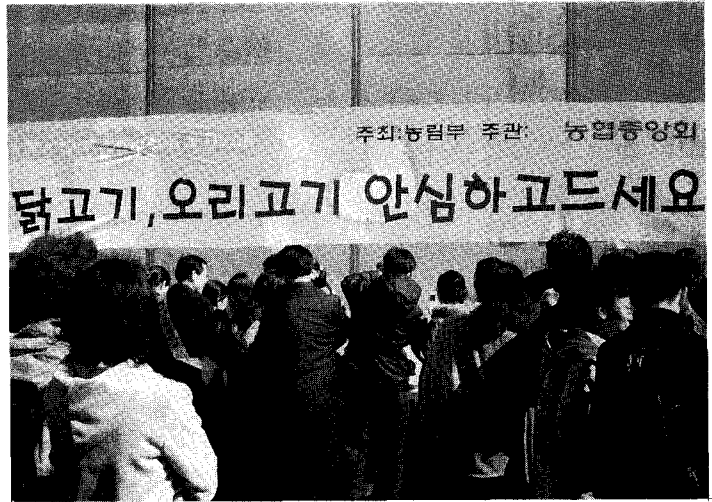


2003년부터 시작된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일명 조류 독감)와 광우병으로 인해 축산업계와 식육업계가 시끄럽다. 그나마 구제역이 조용히 넘어가는구나 하고 숨조리고 있던 양돈업계도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육류소비 격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떻게 보면 수입육을 비롯해 소, 돼지, 닭, 그리고 질병에 대해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알려졌던 부산물까지도 소비부진이 이어져 축산업계와 식육유통업계는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죽하면 업계내에서 그럼 무엇을 팔아야 한다는 말이나 하는 푸념까지 나오고 있으니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광우병과 구제역 그리고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 등의 질병 창궐은 어느정도 예상되었던 상황이다. 해마다 0-157을 비롯해 구제역 방역이다 해서 도로를 막고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한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 98년의 0-157과 99년의 다이옥신파동, 200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구제역과 광우병파동 그리고 파동의 수혜주로 떠올랐던 육계업계의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 파동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질병의 창궐이 축종을 불문하고 년례행사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각과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안일하다는데 있다. 근본적인 대처방법을 찾기보다 그저 시간이 지나 파동이 빨리 가라앉고 사람들 기억에서 지워졌으면 하는 것이 전부이다.

같은 축산업계에 종사하면서도 소와 관련된 광우병이라

고 한우업계만 타격을 입지 우리 양돈업계나 양계업계는 호황이라고 좋아하던 단체도 있었다. 또 돼지와 관련된 구제역이라고 한우나 닭은 문제없으니까 남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다. 때문에 광우병과 구제역으로 한동안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던 양계업계가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 발생으로 힘들어하자 양돈이나 한우업계가 “그거봐라 잘됐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문제는



광우병과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로 소고기와 닭을 안먹으면 돼지고기라도 값이 오르고 많이 팔려야 하는데 소고기와 닭고기 소비부진이 돼지고기 소비부진까지 이어져 식육업계 전체가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진데 식육업계와 축산업계에서 고기소비촉진을 위해 한다는 것은 고작 고위공직자들이 점심식사로 고기를 먹으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전부이다. 식육업계의 불황을 기회로 일부언론에서 다시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들고 나오고 물고기 소비가 늘었다고 여기저기서 선전하는데 어디 한 군데서라도 고기소비가 안전하고 질병감염이 의심되는 것은 전부 살처분 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고기를 먹는다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조리 있게 반박하고 홍보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다는 것에 그저 놀랄 따름이다. 모두가 자기와 관련된 축종만 이상없으면 됐지 남의 분야까지 어떻게 신경쓰나 하는 것이 문제다.

이번 광우병 파동에서 보듯이 우리의 식육업계는 연달아 터지는 구제역, 0-157, 고병원

성기금인플루엔자와 다이옥신 파동 등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아무런 공동 대응조치도 없이 그저 언론에서 보도하는데로 당하는 듯한 무기력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지난번과 같은 채식논쟁을 불러왔지 않았나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2003년도에만 전라남도에서 비브리오패혈증에 의해 20여명정도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물고기 섭취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적이 없는 것을 보면서 불공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얼마전 TV에서 육식이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차원에서도 무조건 육식을 금지해야 한다면서 육식의 피해와 관련된 미국 자료를 증거로 내보이는 것을 본적이 있다. 어떻게 보면 영양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그쪽 정보에만 귀를 기울여 한국인의 체질과 미국인의 체질을 동일시하고 마치 자기가 육류문화권에 사는 사람처럼 호들갑을 떠는지도 모르겠다. 몇년전에 우리나라에 불

있던 이상구 박사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식 식생활의 폐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한국인의 식생활에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무리가 따른다. 아무튼 그릇된 정보로 인해 우리 축산농가나 식육업계가 받는 타격에 대해서도 관련매체는 일말의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식물성 식품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쌀문화권에 속해있고 미국은 고기를 주식으로 하는 육류문화권에 속해 있다. 단순히 비교하자면 미국인들의 연간 일인당 평균 육류 섭취량은 122kg (1998년)으로 우리의 4배(2002년 33.4kg) 가까이 된다. 또한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섭취량을 보더라도 미국의 경우 8 : 2로 동물성지방의 섭취량이 월등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잉 육류섭취로 인한 폐해가 여기저기서 발표되고 어떻게 하면 균형잡힌 식생활로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까가 영양학자들의 최대 관심거리가 되곤 했던 것이다. 육식 위주의 식사로 하루 섭취 칼로리의 40% 이상을 지방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10명중 3~4명이 심장병으로 사망하고, 대장암 사망률이 세계 2위인 미국의 경우 채식위주로 식문화를 개선하는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식육소비량 또한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식생활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동물성지방과 식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3 : 7로 나타나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적극 권장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지방 섭취량은 아직도 20%이하에 머물러 있고 심장병 사망률은 미국인의 16분의 1

일에 불과한 상황인데도 그네들 기준에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사람 대부분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삼겹살에 상추, 마늘, 양파, 파세리, 깻잎등을 잔뜩 써서 먹는 것이 일반화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어떤이는 김치도 넣고 마지막에 냉면이나 된장국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식탁에서 동물성지방의 섭취가 과다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다(채소류 1인당 섭취량은 188kg 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균형잡힌 식생활로 세계최고의 장수국가라 일컬어지는 일본의 경우 일인당 육류소비량이 우리보다 조금 많은 43kg정도 이지만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지방을 적절히 섭취하여 그들만의 식생활 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세계최고의 장수국가로서 동물성지방과 식물성지방의 섭취량을 5 : 5로 유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육류 섭취국가들의 식생활 개선 모델이 되고 있을 정도이다. 국민들의 육류섭취가 금지되었던 명치유신전의 일본인들의 체격과 육류섭취가 가능해진 지금 현재의 일본인들의 체격을 비교해보면 균형잡힌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농협중앙회 조사에서도 채식논쟁이후 고기 판매량이 줄어든 곳이 소위 부자동네라고 일컬어지는 강남지역이 두드러졌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육식회피는 건강악화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눈앞에 드러난 미국식 식생활의 폐해만 보고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에 걸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착각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때다. 미국과 러시아등 육류소비국가에

서 부는 스시(초밥)를 비롯한 일본식 식생활 바람이 건강한 삶을 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과 미국사람들의 그것을 동일시하는 그런 시각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육식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너무나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업계관계자 모두가 자기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남몰라라 하는 것이 이번에도 그대로 표출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몇년전인가 잘못된 규제역관련 보도로 손해를 본 영국의 축산농가들이 단체로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에 나섰다는 보도가 그래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광우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나 소가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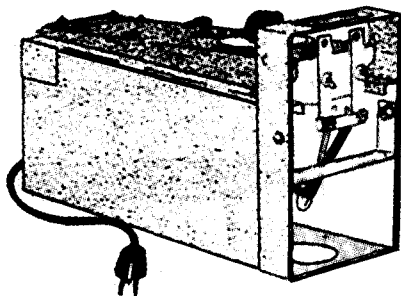
에서 아직 한건도 발견된 적이 없는데 마치 소고기를 먹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보도해 육류소비를 떨어뜨리는 언론 보도행태에 대해 아무소리도 못하고 그저 빨리 잊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서는 축산업계나 식육업계의 발전은 요원할 따름이다.

정부차원에서 식육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일본처럼 관련단체들의 힘을 모아 "식육소비촉진 종합센터"와 같은 기관을 하루빨리 설립하여 식육의 안전성과 관련된 대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더도 말고 채식주의자들이 TV에 나와 채식의 우월성에 대해 힘주어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축산업계나 식육업계에서도 그런 노력과 열의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고병원성기금인플루엔자와 광우병 파동을 보면서... **양계**

부리절단기 * 님플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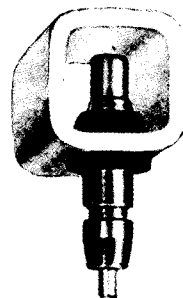
최고의 품질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부리절단기(국산품)



※ 사용중 고장난 제품을 수리해 드립니다.

님플



수입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보령산업

사무실 :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331-27
전화 : (02)461-7887(주·야)